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수영·펜싱 '금빛 스타트' 끝는다



2024 파리 올림픽 본격 메달 레이스

2024 파리 올림픽이 개최식 다음 날인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이날 바로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의 '골든 데이'는 한국시간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으로 이어지는 시간대가 될 거로 기대를 모으지만,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메달 레이스 첫날도 한국이 금메달을 노려볼 만

수영 김우민 28일 오전 3시 42분 자유형 400m 예선전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에페 개인전...광주 강영미 출전

한 종목 경기가 벌어진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게 된 우리나라가 목표 삼은 금메달 5개 이상을 이루려면 첫날부터 메달, 더 욕심을 내자면 금메달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수영의 간판 김우민(강원도청)이다.

그의 대회 첫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 경기가 이날 열린다.

자유형 400m는 올해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우민이 우승을 차지한 종목으로, 2021년 열린 도쿄 대회 때 단체전인 계영 멤버로만 나섰던 김우민이 생애 첫 올림픽 개인 종목 경기가기도 하다.

이후 3년 사이 급성장하며 이번 대회 총 5장의 출전권을 획득한 김우민이 대장정을 시작하는 경기에서 '금빛 역영'까지 펼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파리의 '명소' 중 하나인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펜싱도 기대를 받는 종목이다.

파리 올림픽 펜싱 첫날부터 한국의 핵심 종목인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남자 사브르에선 오상욱(대전시청)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 에페에선 송세라(부산시청)와 강영미(광주시 서구청) 등이 출격을 준비한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경력을 지닌 오상욱(2019년)과 송세라(2022년)가 선봉에 선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는 개인전 이후 30일부터 이어질 단체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로, 개인전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온다면 단체전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메달이 결정될 공산이 큰 선수는 김우민이다.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3시 42분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펜싱의 경우 28일 오전 3시 40분 여자 에페 동메달 결정전을 시작으로 4시 5분 남자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 4시 30분 여자 에페 결정전, 4시 55분 남자 사브르 결승전이 이어지는 일정이다.

한국시간으로 날이 바뀌기 전 27일 오후 시간대 파리에서 320km 떨어진 샤토루 사격장에서 먼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혼성 10m 공기소총 본선과 결선이 열리는 데, 오후 5시 30분부터 동메달 결정전과 결승전이 이어져 한국 선수의 첫 결승전 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한국 탁구 혼복, 4강 가면 중국 만난다

임종훈-신유빈 조, 독일과 첫 경기

한국 탁구 혼합복식 조 신유빈과 임종훈이 1차전에서 독일과 맞붙는다.

탁구 경기가 치러질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25일(이하 한국 시간)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대진 추첨이 진행됐다.

한국은 오는 27일 오후 11시30분 혼합복식 16강으로 올림픽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파리 올림픽 탁구에는 남자부 장우진(미래에셋증권)·임종훈(삼성생명)·조대성(한국거래소)과 여자부 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이은혜(대한항공)가 출전한다.

국제탁구연맹(ITTF)의 랭킹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조 추첨에서 한국 탁구팀이 전략 종목으로 삼은 혼합복식 조의 대진순에 관심이 집중됐다.

혼합복식 세계 랭킹 3위인 임종훈-신유빈 조의 첫 경기 상대는 독일의 치우 당-나나 미탈함 조(랭킹 11위)다.

이어 8강에 오르면 루마니아의 오비디우 이오네스쿠-베르나데트 쇠츠 조(랭킹 8위)와 겨루게

된다.

이날 추첨에 따르면 임종훈-신유빈 조는 준결승에 진출할 경우 세계랭킹 1위인 중국의 왕추진-쑤잉사 조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4관왕 왕추진과 3관왕 쑤잉사는 '탁구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이들 왕추진-쑤잉사 조는 지난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싱가포르 스매시 혼합 복식 결승에서 임종훈-신유빈 조에 1-3 패배의 쓴맛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중국에 패하면 동메달 결정전을 치러야 한다.

이날 혼합복식을 시작으로 남녀 단식, 남녀 단체전 등 모든 세부 종목 대진표가 확정됐다.

임종훈-장우진-조대성으로 꾸려진 남자 단체전 16강 첫 상대는 크로아티아다. 8강 진출 시 중국과 인도의 승자와 만나게 된다.

남자단식 장우진은 64강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다니엘 곤잘레스를 상대한다. 또 조대성은 미국의 카낙 자, 볼도바의 블라디슬라프 우르수 중 64강 진출자와 경쟁한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 마련된 탁구 경기장에서 신유빈(왼쪽)과 임종훈이 훈련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유빈-전지희-이은혜가 나서는 여자 단체전은 16강에서 브라질과 맞붙는다. 4강 진출 시 중국과 경기를 치른다.

신유빈은 멜리사 태퍼(호주)와, 전지희는 푸유

(포르투갈)와 여자단식 64강에서 만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2012 런던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메달을 노린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스페인 골퍼 은람 하루 수입 8억원

올림픽 출전 선수 연간 수입 1위

27일(한국시간)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1만 명이 넘는 선수가운데 연간 수입이 가장 많은 선수는 남자골프에 출전하는 은람(스페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 스포티코가 25일 발표한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연간 수입 상위 20명에 따르면 램은 최근 1년 사이에 2억1000만 달러(약 2910억원)를 벌여 최다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에서 활약하는 램은 하루에 8억원 가까이 번 셈이다.

2위는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에서 뛰는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로 1억2700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

램이 제임스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은 지난해 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떠나 LIV 골프로 옮기면서 막대한 이적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상위 10명은 모두 골프와 농구 선수들로 채워졌고, 20위까지 범위를 넓히면 테니스 선수 2명이 더해진다.

3~5위는 스테프 커리(1억190만 달러·미국), 야니스 아데토쿰보(1억80만 달러·그리스), 케빈 듀랜트(8970만 달러·미국)로 NBA 선수들이 휩쓸었다.

골프 선수로는 카를로스알카라스(스페인·아일랜드)와 스코티 셰플러(6260만 달러·미국)가 6, 7위에 자리했고 조엘 엠비드(5770만 달러·미국), 니콜라 요키치(5470만 달러·세르비아), 데빈 부커(4810만 달러·미국) 순으로 NBA 선수들이 10위까지 남은 자리를 채웠다.

테니스 선수로는 카를로스알카라스(스페인)가 4500만 달러로 13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3870만 달러로 18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KIA '불펜 재정비' 우승 질주 이어간다

최지민 콜업·정해영 복귀 조율 중...“대체 선발 알드레드 더 지켜볼 것”



KIA타이거즈가 '불펜 재정비'를 통해 우승 질주를 이어간다.

KIA는 최근 마운드 고민에 빠졌었다. 선발 운영철이 척추 피로골절으로 이탈하는 등 선발진에 다시

또 부상이 발생했고, 마무리 정해영의 부상 공백도 깊어지면서 불펜 부담이 가중됐었다.

김도현을 선발로 이동시켜 급한 불을 껐던 KIA는 하늘의 도움까지 받았다.

지난 23일 경기에서 양현종이 NC를 상대로 1회부터 9회까지 책임지면서 월요일 휴식일에 이어 불

펜이 쉬어갔고, 24일에는 7-0으로 앞선 상황에서 6회를 앞두고 비가 쏟아졌다.

결국 강우 폭도가 선언되면서 KIA는 남은 이닝을 치르지 않고 기분 좋은 강우 콜드스를 거뒀다. 이날 캠 알드레드가 선발로 나와 8명의 안타를 배치한 NC를 상대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KIA 불펜은 다시 하루 더 쉬어갈 수 있었다.

넉넉한 휴식을 취한 불펜진에는 새 전력도 가세했다.

KIA는 25일 NC와의 경기에 앞서 김사운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최지민을 콜업했다.

최지민은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 1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휴식의 시간을 보낸 최지민은 지난 23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테

스트를 했다.

이날 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한 그는 10개의 공으로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직구 최고 구속도 150km를 찍으면서 복귀를 위한 '이상 무'를 알렸다.

최지민에게는 의미 있는 재출전의 시간이 됐다. 최지민은 "내려가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쉬고 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내리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운동하고, 시합을 준비했다"며 "앞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이번에 퓨처스리그에서 던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 타자들이 잘 못 치니까 기분 좋아지고 자신감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느낌도 좋았지만 1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잘해야 한다"며 "내려가 있는 동안 팀이 연습도 달리고 잘해서 다행이다. 팀에 폐안

스트를 했다.

이날 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한 그는 10개의 공으로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직구 최고 구속도 150km를 찍으면서 복귀를 위한 '이상 무'를 알렸다.

끼치게 재미있게 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마무리 정해영은 '몸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복귀 날짜를 조율하게 된다.

이범호 감독은 "지민이 쉬어주면서 머릿도 식히고 올라오길 기대했다. 마무리 역할을 해줬던 장현식, 전상현이 견제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승용이 트일 것 같다"며 "지민이가 돌아왔으니까 해영이만 돌아오면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퓨처스 리그에서의 성적은 불 필요가 없다. 피칭하는 자세, 느낌 등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불펜을 재정비한 KIA는 알드레드를 더 지켜볼 방침이다. 알드레드는 팔꿈치 부상으로 빠진 월 크로우의 부상 대체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8월 15일까지 정식 선수로 등록하거나 작별을 해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우타자, 좌타자 모두 상대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2선발이 중요하다. 잘 던져 주고 있지만 고심은 하고 있다. 분석하고, 체크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